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남대 동아리 '정보보호119'

광주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디도스 공격 대비 대학부터 해커 양성 힘써야”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돼 있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합니다. 지난 7월 일어났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지는 등 체계가 허약한 만큼 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PC사용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정보보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대 '정보보호119' 동아리 학생들이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정보보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대 '정보보호119' 동아리 이동수(26·컴퓨터공학과) 회장은 “수개월간 밤을 새며 선배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 큰 상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보보호119'는 전국 대학정보보호동아리(KUSIS·40개 대학 동아리 연합회)를 대상으로 지난 8월17일~9월7일까지 진행된 경진대회의 'SW 보안취약점 찾기' 분야에서 국내 유명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로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실제로 수많은 네티즌이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분석해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9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활동하고 있는

'정보보호119'는 지난해에도 같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

다. “디도스 탐지블로 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디도스 대란이 일어나 깜짝 놀랐었어요. 보안이 취약한 국내에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곧 일어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크게 터질 줄을 몰랐어요. 해커(hacker)들이 더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본래 해커의 뜻은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기술자로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커는 프로그램의 취약한 부분을 분석한 후 공격을 하지만 크래커(cracker)는 이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PC사용자들이 타 국가의 사용자에 비해 보안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하다.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만큼 대학에서부터 해커 양성에 대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활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28일 서구 풍암 생활체육공원에서 '2009년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 '개인장비 착용 릴레이', '소방호스 끌기', '족구 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의회 직원돕기 호프데이



광양제철소 노사협력 및 협의기구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의회는 지난 27일 복지센터 대식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한 '사랑니눔 일일 hof-day' 행사를 개최했다. <광양제철 제공>

전국 최초 '초등 교과서 수록'

친환경농업 교육 전국화 기여

친환경농업 전도사 전남도청 김영석씨



홍보용 동영상 제작'과 '어린이 교육용 친환경농업 애니메이션 제작', '친환경농업 사진 공모전'도 시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전남이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한 공무원의 열정이 있었다. 주인공은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에 근무하는 농업 7급 김영석(41세)씨.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 육성 원년인 지난 2005년 1월 친환경농업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5년째 친환경농업 업무만을 담당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 홍보와 소비의 대중화를 위한 개발한 다양한 시책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초등교과서 수록'과 교과용 '친환경농업 학생지도 지침'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시책은 '광역시·도지사 협의안건'으로 채택되는 등 학교 차원의 친환경농업 교육의 전국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알리기 위해 정안한 '친환경농업

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소비자가 구입한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검출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제도를 시행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도 했다.

유기농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유기농업기사 2급' 자격까지 취득한 그는 “앞으로도 유기농업의 확산과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지금까지 16년간 농업분야에서 근무해왔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회 표창 수상, 2006년에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나를 화가로 키워준 고향에 진 빚 갚았죠”

50억대 작품 신안에 기증 우암 박용규 화백



“나를 화가로 키워 준 고향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느낌입니다.”

원로 한국화가 우암(憂庵) 박용규(67·사진) 화백이 최근 고향인 신안군에 추정가액 50억원대에 이르는 작품 169점을 기증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초대작가를 지낸 그는 신안군 신의면 상대리에서 태어난 뒤 남농 허건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다. 소치 허련(허건의 할아버지) 선생의 외가 쪽 후손인 그는 신안과 진도의 섬 풍경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작품을 기증할 곳을 찾다가, 고향에 내놓는 게 도리라고 여겨 기증하게 됐다”면서 “신안군이 김환기 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군도 내년까지 16억원을 들여 아해면 송공리 분재공원 안에 '우암 한국화전시관'을 건립해 그의 뜻을 기리기로 했다.

현재 고향 선운사 인근 구항산 자락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고향 사람들이 편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는 그림들도 모두 신안군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0년 대한미술원전에서 최우수상을 탄 그는 서울 덕수미술관에서 '운무'라는 개인전을 열면서 화단에 나왔다. 이후 30여년 동안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네 차례 특선하고, 서울·목포에서 등지에서 6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신안·조원배기자 wncho@

라이언스 박길무 총재 시집 출판 기념회



국제라이언스협회 355-B1지구 박길무(68·청명실업 및 (주)덕암 대표이사·사진) 총재가 최근 시집 '하늘의 별을 따다'(한림 펴냄)를 내고 30일 광주 상무지구 조선컨벤션 웨딩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

특히 시집 판매 수익금은 총재 선출 당시 약속한 불우 독거노인 겨울나기 기금과 지체장애인 돕기 성금 등으로 쓰일 계획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박 총재는 우연히 접한 서정주 시인

의 '국화 옆에서'를 읽고 문학에 심취하기 시작해 대학 사회교육원 등에서 수학하며 시 창작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였다. 1994년 '월간문학'에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으며 '한국 21세기 문학상'과 '고산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흥사단 창립 시민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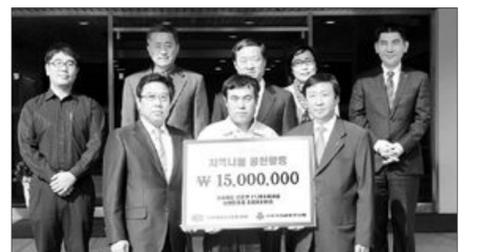
최경환 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청소년문화회관에서 광주흥사단 창립44주년 기념 시민강좌 '김대중 리더십'을 강연한다. 최 전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원 농업박람회 견학



전국주부교실중앙회원 90여명이 지난 27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와 전남도가 실시한 '수도권 소비자 초청 산지체험행사'에 초청받아 농업박람회, 강진 친환경특구 등을 견학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지역나눔 사회공헌' 행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7일 광주공장 본관에서 송천권 광주공장장과 조건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광주 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나눔 사회공헌' 행사를 갖고 1천100여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과 400여만원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이승수(전 광주매일 제작국 부국장)·정옥임씨 장남 정환근 신희수(한국식품 대표)·정연임씨 장녀 주현양=31일(토) 낮 12시30분 금호웨딩 30층 아시안홀.

▲고재욱(전 삼도초등학교교장)·양현숙(광주YWCA 사무총장)씨 장남 기혁(동부건설 법무팀)씨 이계방·남승희씨 장녀 은혜(투보이 MD)양=31일(토) 낮 12시30분 조선웨딩컨벤션 1층(영빈관)

동창·동문회

▲철철회(회장 김창호) 모임=30일(금) 오후 6시 미송식당(동구 호남동). 062-223-6322, 010-6455-6296.

향우회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목) 오후 6시 동구 대인동 화랑궁 회관. 062-224-18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교육 적응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꽃골프 동호회 및 친선경기=발로 볼을 차 흙에 넣는 꽃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꽃골프장. 010-4604-4608.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경험자 우대, 7

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관광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유타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서, 현장답사 직장인 스티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광역시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생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부음

▲박종열씨 별세 성수·성현·나영씨 부친상=발인 30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박형완씨 별세 원균·학민·문화씨 부친상=발인 30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영순씨 별세 박래홍·현숙씨 모친상=발인 2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김순이씨 별세 최애순씨 모친상=발인 29일(목) 학동 금호장례

식장 402호. 062-227-4000.

▲조귀임씨 별세 유문석(전 북구의회 의원)·명환·채성·복래·금자씨 모친상 정옥진(광동 새교회 목사)씨 빙모상=발인 29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신보래씨 별세 김용철·선희·경숙·미숙씨 모친상 정기문(전 KBC 기술부장)·양순일·송하경씨 빙모상=발인 29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기출씨 별세 우진(아프로진(주)대표이사)·천석(곡성사랑병원장)·경희씨 부친상 허순자·김향희(능주초교)씨 시부상=발인 2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두번 슬로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프릿드 (F) 현대중앙상조 가임폰트 1566-4499